

철통같은 국가안보, 차별금지법 저지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제33차 정기총회



설교 및 인사말
정덕화 목사
대표회장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제33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6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에서 열려 북핵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철통같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 땅에 파고든 종교다원주의를 몰아내고 이단사이비의 교회침투를 막기 위해, 동성애자들이 변화되어 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동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찬목 목사(서기)의 기도, 권오성 목사(회계)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본회와 회원교단을 위해’ 전집수 목사(부회계)와 객점수 목사(개혁합동 총회장)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구상회 목사(감사)의 헌금기도 후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과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정체성을 지켜 행함으로 이단사교의 교회침투 방지에 공동대처해 왔음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적극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전한 뒤 이같은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고문 최상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도
최상열 목사
고문



사회
김용도 목사
사무총장



개회기도
이교의 목사
재정 정책위원장



대표기도
박찬목 목사
서기



성경봉독
권오성 목사
회계



특별기도 1
전집수 목사
부회계



특별기도 2
객점수 목사
예장 개혁합동 총회장



헌금기도
구상회 목사
감사

마친 후 곧바로 열린 정기총회는 이교의 목사(재정 정책위원장)의 개회기도, 의장인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의 주재하에 회순에 의해 각종 회부들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원선출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군경 위문, 3.1절 기도회, 통일교육실시 6.25 남북 평화통일기도회, 8.15 광복절 기념예배, 이단사이비 교회침투방지 세미나,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들을 신임원진에 위임키로 결의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예장 합동보수진리 총회장) 회장단 회원교단 21인 총회장,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서기 박찬목 목사, 부서기 김동민 목사, 회계 이상용 목사, 감사 박필준 목사, 이장역 목사



“WCC와 WEA는 기독교회가 아니다”

WCC부산총회 반대 5주년 맞아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WEA 반대성회

WCC·WEA 반대운동연대

WCC부산총회 반대 5주년을 맞아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WEA 반대성회가 지난 10월 27일(토) 오후 1시 WCC·WEA 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 주최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려 이 땅에 깊숙이 침투해 온 이단 사이비와 사교의 퇴치를 위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의 퇴치를 위해 한국교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성회는 오후 1시부터 주아선교전양단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변명당 목사(살론산교회 대표)의 합심기도 인도 후 송준길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박종은 목사(주아선교전양단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주아선교전양단의 특송, 김향주 목사(대신대학교 석좌교수)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2:31-37 말씀을 본문으로 ‘희색주의를 경계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이를 교묘한 포장으로 위장하여 앞뒤가 다른 행동,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주의자가 되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가담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설교 후 곧바로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송준길 목사는 성회취지를 발표했으며 이현숙 목사(분당기쁜우리교회)는 ‘한국교회 문제 비평’을 주제로 송준길 목사는 ‘WCC·WEA 정체성 보고’를 주제로 주제문을 발표하고 송오섭 목사는 회계 및 개혁을 위한 기도문을 인도했다.

이어 최하은 목사(안산 그리스산교회)의 결의문 낭독, 강주상 목사(구미전교회)의 구호제창, 손귀영 목사(예장백석 증경노회장)의 축도로 성회의 모든



광주서 첫 쿼어축제...반대 집회 3만 명 운집

“동성애 조장·확산 강력히 규탄”

광주 쿼어 반대집회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0월 21일(주일) 전라남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금남로47에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등 현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본 교단 광주지방회 목회자와 성도들 비롯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철폐 및 쿼어집회 반대 국민대회’가 진행됐다.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NAP가 쓰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할 수 있다며 이를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 NAP가 “국민을 사람으로 대했다”며 이것이 이슬람 난

민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쿼어문화축제에 대해선 “동성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쿼어문화축제를 공개된 광장에서 하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축제란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가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쿼어문화 축제는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의 모습에 비춰볼 때, 도심 광장과 시내 곳곳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성적으로 문란한 물건들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법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성지 광주에 삼십년 5.18 문화광장에서 쿼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동성애가 문화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조성되고 확산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조용목 목사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3~17)

사람은 일생동안 여러 상황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가부간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일생 접하는 질문 가운데는 구태여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미 운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와 내용에 따라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 됩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여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와 같은 반열에 두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혹은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상 위대한 교사, 자선가, 사회 개혁가, 사상가, 순교자 등으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여러 매시아 중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호평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은는 거리가 멀고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과 판단으로서 아는 것은 그릇되고 무익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만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려다 다시 오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이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의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신뢰란 믿는 것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뢰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맡기려는 결단이 있고 노력을 통해 배우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담대해집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믿음의 요동하지 않으며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맡겼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넷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신뢰하는 것은 대체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신앙단계에 이르게 될 때 주님과 풍성한 교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써 표현하고, 헌신과 희생으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의 말과 노래만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고 가까이 희생하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에스더기도운동 “성도님들께 기도요청”

“가짜뉴스 공장인양 매도… 한겨레, 생방송 토론 왜 응하지 않나”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측이 지난 10월 25일(목)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도 요청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에스더기도운동은 2007년 시작하여 북한, 이슬람권, 이스라엘선교와 성경 운동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복음 들을 신앙의 자유가 없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북한인권과 북음통일 금식기도 운동에 주력했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낙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부터 한겨레신문은 18개의 비판 기사를 쏟아내며 에스더를 가짜뉴스 공장인양 매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동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막아왔고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위인 북한 실상을 한국교회에 알리며 북한인권 기도운동을 펼쳐 온 사역에 대한 영적 반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겨레 사태로 인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22개 내용에 대해서는 한겨레 기자들에게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유통자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과 기독교인 전문가 21명이 함께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박근혜 대선 캠프에 5억여 원을 요청하고 국정원에 43억여 원을 요청해 재정 지원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한겨레의 거짓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통해 낱알이 밝혀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수사와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그 외 수많은 허위보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거짓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2018 신임 교단장 총무 취임 축하예배

한국기독교연합 주최로 39개 회원 10개 단체 참석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0월 18일(목)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 2층 비전홀에서 2018년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 및 축하예식을 가졌다.

39개 회원교단과 10개 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진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식은 김효종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박만진 목사(총무협 회장)의 성경봉독,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가 ‘십자가의 정신으로(골 1:20)’ 제목으로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모두 지도자로 불리는 우리들 책임”이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에매저 자기의 프레임은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며 희생시키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김동성 목사(대신 직

전총회장)가 ‘신임교단장과 단체장 총무를 위하여’, 객체운 목사(개혁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위하여’, 박요한 목사(합동총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권태진 목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2부 축하예식은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가 환영사를 전한 후 서기 김병근 목사가 신임 교단장과 단체장 총무를 소개했으며, 대표회장이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사무총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격려사를 한정총 상임회장 송태성 목사가 축사를 각각 전했으며, 군포제일교회 여성중앙단의 축하가 있는 후 개회개신 총회장 박만수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축하예식은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가 신임 교단장과 총무들 모두에게 전달하는 선물을 진리 총회장 홍종자 목사와 개혁총무 정광식 목사가 대표로 받은 후 법안이사 원종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교회평신도총연 창립, 교회갱신운동 전개

“대정부 대사회 향해 한 목소리 낼 것”

교회 일치와 교회 갱신을 위한 평신도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위한 ‘한국교회평신도총연합회(이하 한평총연)’가 창립됐다.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기침, 기성 등 한국교회 교단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23일(화) 코리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재에 김범열 장로, 대표회장에 심영식 장로를 추대했다. 한평총연은 창립 취지를 통해 “작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며 지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를 나무라는 현실”이라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의 급진적인 세속화로 인해 패거리 싸움에 전전긍긍하며 특하면 사회에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평총연은 또 “교단은 한없이 분열되고 쪼개져 수백 개로 난립해 어느 교단이 정통



교단인지 어느 교단이 그릇된 교단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면서 “이런 틈을 타 이단사이비들은 한국교회에 침투해 교인들을 흑세무민하고 현혹시켜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삶을 빼앗아 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깨끗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자 나서게 됐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평총연은 교회(교단)일치와

교회갱신을 위한 평신도 운동을 전개 할 것과 평신도들의 신학정립 및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신도들의 신앙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신도 실천운동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 운동 전개,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한 이단사이비 세미나 개최, 동성애 추방과 반대운동 전개 등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목적으로 주력키로 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노회 노회장 양정섭 목사와 8개 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노회를 갖고 사무보고 및 정책보고를 받았다.

이날 드린 예배는 임정태 목사(중부노회장)의 사회, 이영춘 목사(중앙노회장)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양정섭 목사(서울노회장)의 설교, 한재진 목사(엘레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 양정섭 목사는 ‘주님의 방범대로 살라’(눅 15:1-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말씀을 전했다.

특히 ‘주님의 판단기준을 잘 깨닫고 만사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 우리는 아저러워진 현실을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김승혁, 최종면, 김재순, 이효열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각 노회에서는 총회 보고를 통해 서울노회는 양정섭 목사가 노회장에 유임되고, 중앙노회장은 이영춘 목사, 중부노회장은 임정태 목사, 서부노회장은 이순태 목사, 경기노회장 박병원 목사, 인천노회장 한성욱 목사가 노회장으로 유임되고, 미국 워싱턴노회는 김정희 목사가 노회장으로, LA노회에 신현주 목사가 노회장으로 각각 유임되었다.

2018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 열린다

전문인선교회, 정상운 박사 등 수상자 선정

(사)한개협 세계CEO전문인선교회(WCPM, 대표 박형택 목사)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문직업 을 가지고 ‘백만 전문인 선교사 시대’를 여는 일에 기여하고자 11월10일 서울시 연지동 여전교회관 대강당에서 ‘2018 자랑스런 전문인선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수상자는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장로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안옥섭 장로,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증경회장 이건오 박사,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직전이사장 이상구 장로,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 등 5명이다.

(사)대한민국국가조장기도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영진 장로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議政) 전문인선교와 기독교 선교단체

만 나라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다.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옥섭 러시아선교회장은 유엔 지상사 대표로서 교단 내 총회와 노회의 수많은 기독교 단체의 발전과 사회봉사 그리고 러시아선교에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다.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증경회장으로 섬기는 이건오 박사는 평생 인류의 건강과 사회 및 의료봉사로써 의료 전문인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다.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직전이사장인 이상구 LGFA 추진위원장은 직장선교와 사회봉사 및 경영 전문인선교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다.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이며 전 성결대 총장을 역임한 정상운 박사는 성결대학과 신학의 발전과 교육 전문인선교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다.

대표 박형택 목사는 “시상식을 통해 일(직업)과 삶 속에서 복음전파하며 전문인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CEO, 정경인, 실업인, 의료, 교육인, 과학기술인 법조인, 방 송인문인,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자비량(전문인)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의 전문성과 선교의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CEO(직능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리드해 나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카이캄, 제38회 목사 안수식 거행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 임할 것”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이하 카이캄) 제38회 목사 안수식이 지난 10월 22일 오전10시 분당할렐루야교회 본당에서 열려, 141명의 목사 안수자들은 성소의 직부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141명의 목사 안수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소명에 순복하는 순교적 목회자,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는 목회자, 인성과 전문성, 품성과 영성의 목회자가 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예배는 방승원 이장기 집사의 사회로, 김승욱 목사(분당할렐루야교회)의 대표기도와 김정동 목사(대구시온교회)의 성경봉독(골 1:28-29),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하나님의 아버지’,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데서’란 제목

의 특별찬양, 마평택 목사(새순교회)의 ‘목회적 돌봄’이란 제하의 설교 순서로 드려졌다.

마평택 목사는 141명의 목사 안수자들이 사랑의 사도들이 되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갖길 바라고 또한 모두가 은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권한을 가지기를 강권했다.

또한 조예환 목사(부천 갈보리교회)와 브라이언 박 목사(CTS몰렛가진행자),선종철 목사(하비전교회)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성과 부흥’,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생명의전화, 한일 유가족 청년 교류회 개최

일본 LIFELINK 연계, 일본 유가족 한국 초청

생명의전화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생명의전화는 일본의 유가족 단체 LIFELINK와 연계해 이번 행사에 일본의 유가족 청년들을 한국에 초청할 예정이다.

‘자살 생존자’란 사랑하는 이를 자살로 잃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다. 우리나라는 자살을 개인적인 죽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

한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기 매우 어렵다. 유가족들은 평생 자기 마음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죽은 그 고인에게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 생존자는 보통 사람들이 ‘행렬한’ 죽음에서 경험하는 슬픔 이외에 고유한 죄책

감, 혼동, 정서적인 혼란이라는 시련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시간만으로는 자살 생존자를 치유 할 수 없다.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지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하나되자’ 주제로 연합 부흥성회

경기지방회



김병호 목사
경기지방회장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10월 17(수)~19(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성령으로 하나되자’라는 주제로 지방회 연합 부흥성회를 순복음아멘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의 사회, 부회장 전하세 목사의 기도, 제무 안재

봉 목사의 성경봉독과 증경회장 엄하석 목사, 임영광 목사,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김비율 목사의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첫째 날에는 엄하석 목사(주성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 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오래참고, 선을 따라야 한다”고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했다.

둘째 날에는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가 ‘더러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믿음의 사람, 맡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법사에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권면했다.

셋째 날에는 임웅재 목사(교단총회장)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아멘교회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베들레헴 찬양대의 특송, 은누리순복음교회와 진리교회의 특송과 남여 목회자들의 특송이 참으로 은혜로웠다. 마지막 날 성도들



은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시간으로 서로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다.



강사
임웅재 목사
총회장



강사
임하석 목사
경기지방회 총경회장



강사
임영광 목사
경기지방회 총경회장



제주도에서 2박 3일 부부수양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0월 23(일)~25(목)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부부수양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오전 10시 광주공항에 집결해 11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24명이나 되는 부부가 이처럼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회장 최정식 목사의 공로가 컸는데 그것은 비행기 티켓을 일체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제주에 도착해서 맛있는 해물탕을 시작으로 선상낙시를 비롯하여 마상초와 현당을 레일을 걸으며 더 많은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회상의 서거스’와 ‘사랑의 유람선’까지 타고 동백나무 올레길을 걷고 나서 저녁에 먹는 회정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이었다.

이어서 수요일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리고 즐거운 티타임을 가진 후 마지막 날에는 승

마체현과 참나무순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다.

2박 3일 간의 부부수양회를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면서 회원들은 즐거웠던 여행담을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가을 야유회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장기명 목사)는 지난 10월 23(일) 거제시 일대에서 가을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거제시 대금산으로 가볍게 등산을 하고 산 정상에서 환타한 나라와 한국 교회에 대해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거제시 하청면 섬에 있는 ‘노을 지는 펜션’으로 이동하여 준비해 온 재료를 함께 협력하여 조리하며 맛난 점심식사를 하고 준비해온 레크리에이션을 하



고 게임을 통하여 상품도 서로 나누며 즐겁게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을 야유회를 가졌다.

월례회 및 순교지 방문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진장길 목사)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 강릉순복음교회(담

임 정주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 회부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정은 목사의 대표기도 정주영 목사의 눅 8:4-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백배 결실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 박규희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월례회 역시 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서기 정주영 목사의 회원점명과 전회의록낭독 후 지방회 각종 회부를 처리하였다.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0월 22(일)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 후 2부 월례회에서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오찬을 가졌다. 이어 국내 순교자인 전남 영광 염산교회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단일교회로 77인의 순교자인 염산교회와 순교기념관을 관람하며 전국소망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담고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비핵화 진전 없는 군사합의 우려

국민총결기 대회

국기하제, 영토포기, 국군무장하제,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총결기 대회가 지난 10월 27(토)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열려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독재체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북한의 평화위장 전략에 속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9.19 평양공동선언문과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자유 대한민국

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 생명의 말씀 ■



김장수 목사

·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
· 예순교회 담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 전부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기업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와 나라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고 가치가 소중하므로 한 사람이 비로써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눈이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순회하며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짐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악히 다하시오니”(시 139:1-3)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 심판대에서 만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일제 압박 36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6.25전쟁의 잣대

미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발전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다나라는 죄로 인해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3-4)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들어서 듣는 ‘hearing’과는 다른 ‘listening’의 뜻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나리라”(요 5:25)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낚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집을 짓고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집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면 멸망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의인은 국가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중요함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

를 살렸습니다(삼상 12:23).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출 32:32).

파가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렘 15:1)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기회로 주십니다. 나라의 정태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국가적인 문제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요인에는 확고부동한 용기, 확고한 계획성, 강한 책임감, 상세한 지식 습득, 호감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침신대 14대 총장에 김선배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신학과 김선배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사장 심치열)은 지난 10월 22일(월) 제152차 이사회를 열고 법인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배 교수를 제14대 총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직무 복귀’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지난 4월 전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이다. 지난 10월 24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전 감독회장은 “분열된 감리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부흥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국창조과학부흥사회 창립총회



한국창조과학부흥사회는 지난 10월 22일(월)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성결회관에서 창립예배 및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부흥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한국교회 창조신앙 회복 및 전도운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초대회장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겸 창조과학전문교육원장인 김치영 목사(서울 창조반석교회)를 선출했다.

‘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



소기현 장신대 교수는 지난 10월 29일(월) 서울 서초구 성민교회에서 자유와인 권연구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에서 “성경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집단으로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극단적 이슬람의 유입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황 방북 요청, 실현 가능한가?

지난 10월 18일 문 대통령은 교황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교황은 ‘가능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황청은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리 대통령이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도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교황의 각 나라 방문은 ‘사목 방문(pastoral visit)’이어야 한다. 즉 방문하는 나라에 가톨릭의 교구(敎區)와 사제가 있어서 그들이 교황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인 가톨릭교회가 1개 있으나, 교구도 없을뿐더러 사제도 없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북한 평양의 교구를 대리하고 있는 한국의 서울교구가 교황을 초청하고, 사제들이 평양에 가서 교황을 맞는 식이 되어야 한다.

절차가 이렇듯, 느닷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티칸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이 제대로 된 격식은 아닌 것이다. 또 북한이 과연 교황을 초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교황을 초청하려 한 적이 있었다. 1991년과 2000년 두 번 있었는데, 북한 내부의 문제

로 교황 초청 문제를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가톨릭 교구와 사제가 없을뿐더러, 지난 17년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교황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북한도 부담을 안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두 번에 걸친 내부적인 문제는 결국 교황 방문으로 인하여 종교인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 이러저러 교황의 방북은 정치적, 종교적 결림돌이 있

다고 판단한다.

설령 교황이 방북한다고 하여도, 그러기 전에 먼저,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보장함을 천명해야 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북한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3대 세습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고모부와 친형까지 살해할 정도로 극악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진정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한 나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국민 주권상 기본이며, 누구도 강제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왕 교황의 방북문제가 나왔다면, 북한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런 종교적인 목적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종교가 이용당한다면, 로마 가톨릭으로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를 제정한 우리 정부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로 풀고, 종교는 정치의 틀러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창원순복음교회(권우석 목사) 성전 증축을 위한, 이현순 사모 두 번째 수필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발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순복음교회 권우석 목사의 아내 이현순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3년에 성전건축 1차 공사(150평)를 하였고, 이번에 성전 완공을 하기 위해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전건축 완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신앙 서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말씀 QT, 신앙수필, 간증, 기도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전도용과 양육용으로 사용하기도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낙심하여 믿음을 떠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깨어나길 날마다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작은 은혜라도 되셨다면 1만원의 성전건축기금을 부탁드립니다.

책을 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 현 순 올림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81번길 27(창원순복음교회)
- T. 055) 237-5907, H.P 010-2246-5905
※ 계좌번호 ●농협 821143-55-000262 (예금주 : 창원순복음교회)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가짜뉴스의 본거지인 한겨레신문을 엄중히 수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동성애 반대 활동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

한겨레신문은 9월 27일 동성애에 관한 다수의 내용이 포함된 22개 뉴스를 가짜뉴스로 지목하였고, 25명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로 보도하였다.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이 주장한 동성애에 관한 가짜뉴스는 가짜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다. 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동성애 관련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서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자로 낙인찍힌 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한기모)]을 구성하였다.

9월 27일 가짜뉴스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고 난 뒤, 10월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엄중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10월 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종교단체

를 지목하였다. 또 10월 4일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10월 8일에는 국무회의 후 관계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가짜뉴스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연기되었다.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기사가 보도된 후, 정부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성평등 이념에 반대하는 합법적인 동성애 반대 운동에,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려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권력의 모습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성평등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기모와 동반연(동성에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짜뉴스의 본거지인 한겨레신문사와 동성애 반대 활동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가짜뉴스, 종교탄압,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규탄 집회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부산(10월 13일), 세종(10월 14일), 광주(10월 21) 등에서 열렸다.

2018. 10. 10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한국기독교부흥협 50대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추대

임준식 목사 “희년의 해에 맞는 계획 펼쳐며 헌신할 것”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사장 송일원 목사, 이하 한기부)는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올림픽로강남호텔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준식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기부 50주년에 맞는 운영계획을 밝혔다.

임 목사는 “한기부 50주년 ‘희년의 해’를 맞이해 그동안 한기부 회원들의 모든 희비를 탕감하고 회원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또한 한기부가 한국교회에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단 문제를 대처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이단의 기준을 명확히 해 이단 판별에 대한 사비를 줄이고 정확한 이단 규정을



통해 정통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외에도 부부수련회와 체육대회 및 회원교

회 방문을 해 교회 간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해 회원들이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TS 창사 23주년 기념음악회 ‘2018 희망! 대한민국’ 개최

음악계의 거장 윤학원 장로의 지휘로 CTS 예술단 6개 단체 합창으로 하모니

올해로 창사 23년 주년을 맞이하는 CTS가 산하 예술단이 오는 11월 8일 KBS홀에서 창사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출연하는 산하 예술단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문화선교사역을 통해 세계를 교구로 지경을 넓히며 영상선교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CTS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CTS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지원사업과 대안학교

CGS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은혜와 감동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한국교회의 성장과 연합 및 교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복음방송으로서의 사회적 공기로 책임과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며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될 창사 23주년 기념음악회 ‘2018 희망! 대한민국’은 CTS의 지금까지의 방송선교사역에 문화를 접목해 보다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기념음악회에는 CTS교향악단, CTS서울소년소

녀합창단, CTS장로합창단, CTS권사합창단, CTS오카리나 오케스트라, CTS콘서트과이어 6개 단체가 참여하며, 테너 이정원 교수, 소프라노 석현수 교수가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합합창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음악계의 거장 윤학원 장로가 지휘할 예정이다.

음악을 통한 기독교계의 화합과 일치, 세대간의 하모니를 위한 창사기념 음악회에 기독교방송을 선도하는 CTS기독교TV가 아름다운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신대, 제7차 ACTS신학포럼 개최

‘신학공관운동’은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운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제7차 ACTS신학포럼’이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5일(월)에 개최됐다.

ACTS신학포럼은 신학공관운동의 일환으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로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ACTS가 펼치고 있는 ‘신학공관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하려는 운동으로서 다양한 학제 간의 통합적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복음에 방점을 두는 학문연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닌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7차 ACTS신학포럼은 제5대 신학연구소장 박응규 교수의 사회로 발표된 논문은 교양학과 금동철 교수의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진리’,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의 ‘Theo-Drama 공연 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 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사례 연구였다.

금동철 교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된 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전

제하면서, “기독교 중심진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서정시의 특징을 밝히면서 ACTS 신학-신앙운동을 삶의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기독교적 서정시가 지닌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진리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기독교적 서정시를 구성하는 세계관이 어떠하며 어떠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ACTS신학-신앙운동의 확산이라는 면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다니엘 교수는 Theo-Drama의 의미와 원리를 무브먼트 예술, 신학적 드라마, 신학적 교육, 그리고 타문화 선교라는 관점에서 ‘Resurrectio’를 중심으로 진술하면서, “예술은 말씀에 편향된 모던 세대와 ‘후 말씀(afterward)’ 포스트모던 세대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 무대예술은 하나님 중심의 창의적 전도와 선교방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 발표 후, 이숙경 교수와 정호영 교수의 논쟁이 있었고, 그 후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기성 목회 페스티벌, 목회전략 조망

목회의 본질과 부흥의 노하우 공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성결교회 목회 페스티벌(2019년 목회계획 세미나)을 지난 10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 리조트에서 열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목회전략을 조망했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 목회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목회 페스티벌은 전국 성결교회 목회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회의 본질과 부흥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제112년차 총회의 주요 정책과 6대 비전을 소개한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단의 역량을 모으자고 독려하고,

목회 페스티벌이 교단 목회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는는 내로라하는 강사진들이 총출동해 건강하고 교회성장의 갈급함에 빠진 목회자들에게 자신감은 물론, 목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의철 목사(송도하나안교회)가 ‘50일 기적 프로그램’으로 개척 9년 만에 2,000명 출석 교회로 성장시킨 과정을 소개했고, 김철환 감독(오목천 감리교회)과 장학봉 목사(성안교회)도 각각 ‘소그룹장 세우기’와 ‘새신자 정착’ 등 노하우를 공개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교단공과 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중고등부학생용교사용은 별도로 발간(인함) : 3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용 : 5,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ax : 02)2677-5181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 2018년 12월 3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천군청 (문화관광) 문화관광사업
www.bible1816.modoo.at
1816bible@daum.net



한국
최초

성경전래기념관

Korea's First Encounter with the Bible: The Seocheon Bible

성경전래!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

한국최초 성경전래의 영향



1816년 9월 5일 2척의 영국함대가 서해안 일대의 해도 작성을 하던중 '진에' 정박한다. 알세스트호의 함장 맥스웰을 통하여 침사 조대복에게 한국최초로 성경이 전달된다.
그 당시의 일들이 책으로 엮어져 서구사회에 조선이 소개되는 접착점이 되었다.

- 그 당시 받은 성경은 1611년(초판) 킹제임스 성경임.
- 최초의 성경전래가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됨
-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잖은 원동력이 되었다.

1F

전시관

- ① 항해의 채비 서해안 항해의 목적과 합선, 그리고 서천 마량진
- ② 바이블로드의 서막 성경 전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극화한 애니메이션 상영
- ③ '이방인과 알 수 없는 언문' 머리 맥스웰 함장과 배심물, 마량진 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렬 일화와 만나다.
- ④ '몸짓으로 이룬 소통' 함선에서의 에피소드

관람시간

하절기 : 3월~10월 (10:00~18:00)
동절기 : 11월~2월 (10:00~17:00) 폐장 30분전 입장마감

휴관안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수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문의

(041)951-1816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89-16 (서면 마량리 137번지)

2F

전시관

- ⑤ 세계적 보물인 킹 제임스 바이블 진본 전시 (1611년 초판)
- ⑥ '한국성경 변천사'
- ⑦ '성경책 만들기'
- ⑧ '포토존'

3F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특산물 판매장
서천 최고의 전망과 맛있는 원두커피 등

4F

다목적강당

예배실·세미나·레크레이션 등
심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또다른 세상
바다위에 십자가!!!
카메라에 담아 보세요.^^

관람료

성인 2,000 / 청소년·군인 1,000 / 어린이 600
성인 1,500 / 청소년·군인 600 / 어린이 400 (단체 20인 이상)

후원안내

농협 351-0968-7961-13
(한국최초성경전래기념관)



(사)한국최초성경전래 사업회



함께 보아야 할
기독교 유적지



아펜젤러 순식 기념관



한국최초 성경전래 기념공원



한국최초 성경전래 기념공원



미량진 한국최초 성경전래 고종박물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총회장에 김원식 목사 유임, 임원 개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 제26회 정기총회 성료



총회장
김원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 제26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대저동 예수사랑교회(담임 김원식 목사)에서 열려 총회장에 김원식 목사를 유임키로 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선하고 교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중앙노회 부회장 김세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경숙 목사(은혜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경남노회 임원 및 손유화 전도사의 찬양, 중앙노회장 엄달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전 3:10-14 말씀을 본문으로 '시나이 라이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을 위해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에 이어 경서노회 류화평 목사와 경남노회 증경노회장 조관제 목사의 축사, 피어선총회신학연구원 안재구 교수의 격려사, 부총회장 김병선 목사의 광고, 기장총회 증경총회장 김동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곧바로 부총회장 김병선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갖고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총회장 김원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단발전을 위해 한마음 되어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기타 안건들은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하고 총회장 김원식 목사의 폐회기도로 26회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2018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 6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8년 11월 29일(목) 17:00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1월 1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우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예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예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기아대책, ‘세계식량의 날’ 맞아 시민과 함께

기존 형태 벗어난 대형 우유·빵 설치미술형 부스 세워 이색 캠페인 ‘눈길’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높이 3m의 거대한 빵과 우유가 세워졌다.

시민들에게는 조금 낯선 ‘세계식량의 날’을 알리고, 기부분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아대책과 공익광고 전문가가 이색적 씨가 손을 잡았다. 세계식량의 날은 매년 10월 16일로 전세계 식량과 기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날이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10월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서울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 설치미술형 행사 부스인 우유 모양의 나눠유(儼)와 빵 모양을 세우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부스는 16일~18일까지 동아일보사와 청계광장에 세워졌다.

기아대책은 대형 부스 앞에서 시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담은 우유 ‘나눠유(儼)’와 ‘나눔커피’를 선착순 300명에게 나눠주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무거움 주제인 빈곤 문제를 더 재미있게 알리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식량이 필요한 전 세계의 굶주린 이들을 떠올릴 수 있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형 홍보부스를 기획한 이색서 광고연구소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며 “아주 작은 나눔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작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대책은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STOP HUNGER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홈페이지(<http://bithy.kr/SMNZ>)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성로타리클럽, 문화공연 및 급식봉사

서울역 해돋는 마을에서 따뜻한 사랑 나눠

국제로타리 3650지구 한성로타리클럽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역 해돋는 마을 노인교실에서 무의탁 독고노인과 노숙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밥사탕 무료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한성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은 서울역 노숙인을 섬기는 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한일 목사, 생명나무교회)과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

에서 급식봉사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성로타리클럽 김무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0년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신 노인들이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하며, 한성로타리클럽



럽은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로타리 정신’에 따라 무의탁 노인 등 한들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봉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역 문화공연과 밥사탕 무료 배식 봉사에는 김무일 회장 및 유창열 총무 소제진 5 지역 대표 이장원 봉사위원장을 비롯 한성로타리단 25명이 참여하여 국내 정상급의 태너 이장원 교수와 김기종 기수(원페라)가 멋진 공연으로 참석한 300여 어르신들에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고, 한성로타리클럽 성금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서울역 13번 출구와 (사) 해돋는 마을은 1999년부터 가난과 알코올중독 속에 노숙생활을 하는 서울역 노숙인들과 쪽방촌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및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는 물론 60세 이상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노인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개선에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한성로타리클럽은 창립43년(창립 1975.4.23)역사의 3650지구 최대클럽으로 장충식총재, 팽재유 총재 등 원로회원들과 매주 목요일 오전 주회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서울시약사회, MOU 체결

‘2018 생명나눔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와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중환, 이하 약사회)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합친다. 양기관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업무 협약식’을 갖고,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약사회는 시내 25개 자치구 5,000여 약국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대한 참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회원들이 생명나눔 약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권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명나눔 약국은 약국 내에 장기기증 리플렛 및 POP를 비치하고, 매출의 일부를 장기부전 환자에게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시내 약국이 장기기증 홍보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탁 이사장은 “본부와 약사회는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시존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을 나누는 본부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을 공급하는 약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중환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지근거리에서 돌보고 낯을 하고 있는 약사들이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약사의 근본이 사람과 나눔의 마음인 만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에는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2018 생명나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생명나눔 분위기 확산 및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마련됐다.

동 운동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아이디어·수기·슬로건 등 각 부문 수상자들이 참석해 수상



과 함께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상명대학교 한국어학과 과 공동저실팀(공소연·김상욱·서세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대학팀인 서울예술대학교 쇼엔프루브(김남규·배지선·황민희)와 김솔 씨가 우수상을 차지했고, 장려상에는 김혜연·정인규·이호준 씨가 선정됐다.

수기 부문에서는 정미영 씨의 ‘몸과 팔의 러브스토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박지혜·표재철 씨가 우수상을, 강다영·권순구·최윤영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은 이장원 씨가, 우수상은 고선영 씨가, 장려상은 김정훈·강민희 씨가 각각 선정됐다. 분야별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우수상(분야별 2등)은 상금 70만 원 및 상장, 장려상(분야별 3등, 슬로건 부문 2등)은 상금 50만 원 및 상장이 각각 전달됐다.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 성료

분쟁피해지역 아동의 어려움 체험 통해 공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10월 12~14일, 19~21일 2회에 걸쳐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를 가졌다.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는 세계의 분쟁피해지역 아동들의 고난을 공감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전체 캠프 동안 가족 단위 시민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진각평화누리 캠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캠프는 월드비전 분쟁피해지역 아동보호캠페인 ‘1AM’의 일환으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분쟁피해지역 아동이 겪고 있는 빈곤과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평화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장이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월드비전 네이처 포스트가 주관했다.

캠프 기간 임진각 평화누리 중앙 잔디광장에는 ‘1AM 영화관’, ‘1AM 미술관’, ‘1AM 난민캠프 V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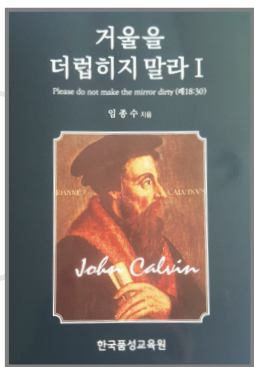
AM 도서관’, ‘1AM 놀이터’, ‘1AM 희망트리’, ‘1AM 내 친구의 소지품’, ‘DMZ 생태체험교실’ 등 분쟁피해지역 아동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8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13일, 20일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와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DMZ 세계시민 나눔 체험 골든벨’ 행사가 진행되며 가족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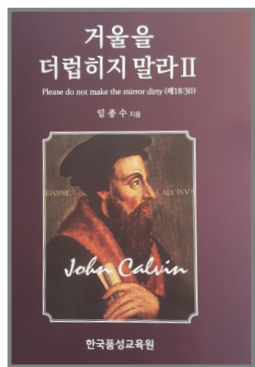
캠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이번 캠프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지구촌 현실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캠프로 모인 참가비 전액 및 플리마켓 수익금은 분쟁피해아동을 돕는 긴급구호사업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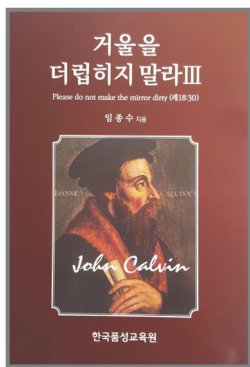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내홍

극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예정총연의 본래의 목적 이루기를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가 연합회운명을 둘러 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내홍을 겪고 있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19회 총회를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 예정총연)로 창립총회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법인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는 선교단체로 산하에 두기로 결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미국법인 예정연 소속인 줄 알았는데, 미국법인 예정연이 죽은 법인이라는 의혹과 함께 이광용 대표회장에게 대한 법인 불법 운영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사 9명 중 대표이사인 이광용 목사와 별세한 이사 1인을 제외한 7명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익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후, 미국법인 관련 의혹 및 불법 운영문제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자 비대위는 지난 8월 27일 임시총회를 긴급 소집해 이광용 대표회장을 해임한 후 김태경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임했고, 이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지난 4일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았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23일 인천 성서교회(김태경 목사) 경과보고회를 개최해, 이러한 사실들을 회원들에게 보고한 후 비대위를 해체하고 김태경 대표회장 체제의 (사)예정총연 시대를 공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광용 목사측은 비대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이며, 이들의 임시총회 모든 과정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목사측은 법인 대표자 변경에 맞서 인천지법에 변경된 법인 대표자 김태경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 등 무효(반안)와 (대표자)직무집행정지처분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다.

쟁점이 된 미국법인의 실체는 예정총연이 구 예정연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법인을 사용해오다, 올 초 인천시 법인을 새로 취득해 예정총연으로 단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금번에 비대위에서 김태경 목사로 대표자를 변경한 법인은 바로 인천시 인가 법인이다.

비대위는 오랜 기간 예정총연의 법인으로 사용했던 미국법인이 애초 허가된 적이 없거나, 현재 말소상태이며 그동안 이 목사가 이를 회원들에게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강익 목사는 “현 미국법인의 상장이 ‘NO ACTIVE’ 즉 활동하지 않아 말소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법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측은 기자들에게 최근 미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법인 허가증을 직접 보여주며, 법인이 허가된 적이 없다는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 ‘NO ACTIVE’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 예정총연이

매년 수많은 행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활동했다는 것은 비대위가 더 잘 안다. 활동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NO ACTIVE’라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이 말소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직인 도용으로 이강익 목사 등 비대위측이 지난 2010년 이광용 목사가 기독교 전을 추모관, 즉 남골당의 분양의향서에 운영이사들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를 작성했다고 고소까지 한 사건이다. 이 증서에 따르면 “공증 및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 이광용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에 이름을 올린 이강익 목사 등은 자신들은 이런 계약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직인을 내준 적도 없으며, 이광용 목사가 사익을 위해 직인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 계약은 실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강익 목사 등은 직인을 도용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광용 목사측은 “검찰에서 판단했듯 애초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부분이며,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이사들도 다 인지했던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문제의 남골당 ‘분향 의향서’를 작성한 주체가 예정총연이 아닌 사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이하 한부연)이며, 한부연은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주관하는 단체로, 이광용 목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예정총연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허락없이 남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서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쟁점을 물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광용 목사측은 오는 임시총회의 불법성과 법인대표자 변경의 부당성을 들어 총회결의 무효와 직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11월 1일 제20회 총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김태경 목사측은 곧 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선임 및 예산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교회에 하나 됨의 기본 소식보다는 분열과 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며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극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예정총연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는 초스피드능력전도!

속초, 강릉, 양양, 고성, 대진, 부산, 서울목회자들과 함께 지난 10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박영수 목사와 함께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에 한 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반주와 찬송 인도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가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통하여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영접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집회 도중에 박영수 목사와 같이 속초 해수탕에 가게 되었는데, 목욕탕 안에서도 사명을 만나면 편하게 예수님을 영접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전도는 처음 보았습니다! 박영수 목사는 목욕탕 안에서 5명에게 예수님을 영접 시켰습니다.

가족세트전도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초스피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능력전도 방법임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회를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은지만 기도를 따라하지면 구원 받고 지금 문제의 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전도자들은 제 기도를 따라하였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쉽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박영수 목사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춘천오순절기도원교회 김지훈 목사 드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ACTS신학저널’ 등재학술지 선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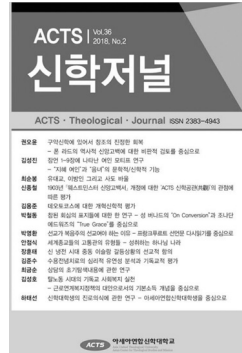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ACTS신학연구소(소장 박응규)가 발행하는 ‘ACTS신학저널’이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88.8점으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며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학술지들을 평가해 매년 등재지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발간된 35, 36집에 게재된 모든 학술논문은 등재학술지로 인정받게 되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ACTS 신학저널’은 1984년 영문저널로 시작해 2014년부터 1년에 4차례씩(1회는 영문, 3회는 국문) 학술지를 펴내고 있다.

‘ACTS 신학저널’을 발행하는 ACTS신학연구소는 ACTS의 신학 노선인 복음주의와 신본주의, 선교적 사명감 등을 고취하기 위해 연구에 힘써오고 있다.

최근 발간된 ‘ACTS신학저널’ 36호에는 ‘구약신학에 있어서 창조의 진정한 회복’(권오윤), ‘잠언1~9장에 나타난 여인 모티프 연구’ (김성진), ‘세계종교들의 고동관의 유형들’ (안정식) 등 13편의 논문이 실렸다.



글로벌선진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각 교육과정과 우수대학 진학의 비결 등 소개

글로벌선진학교(이하 GVCS)가 2019학년도 봄 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10월 27일(토)과 12월 8일(토)에 각각 음성캠퍼스(오후 1시)와 문경캠퍼스(오후 2시)에서 진행된다.

국제화 교육을 리더하는 GVCS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학부모,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학설명회에서는 GVCS의 교육과정, 영어몰입교육, 영어가 부족한 학생에 대한 ELA교육, 영성훈련, 기숙사 생활, 방과 후 활동, 전교생 태권도 교육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의 우수한 대학 진학 실적의 비결과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100여의 지구촌을 섬길 글로벌인재양성을 목표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골 활동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알립니다!

1. 당일 낮11:30분까지 양평동 총회본부에 모여서 단체로 이동
2. 오후 3시에 산행기도회 장소로 이동 후 산행기도회 실시
 - ①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 ②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 ③교단 발전과 정책위원장을 위하여
 - ④총회장과 임원들과 교단교회들을 위하여
 - ⑤교단 부흥사회의 역동적인 사역과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 ⑥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활동저지와 동성애 동성혼허용 및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하여
3. 하산 후 저녁식사
4. 오후 7:30분부터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세미나 교육
5. 성령충만 기도회 및 임.회원간의 나눔과 교제
6. 취침
7. 다음날 오전7시에 아침예배 후 조식
8. 오전9시~ 부흥사가 갖춰야할 덕목 및 바른 사역을 위한 세미나
9. 오전11시~ 주변 명소 탐방 사역 나눔
10. 오후1시 점심식사 후 각 사역지로 출발

*부흥사회 소속 임.회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열정적인 부흥사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번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 일 시 | 2018년 11월 8일(목) ~ 9일(금)

| 장소 |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임웅재 목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362

☎(031)532-4729

| 참가자 | 부흥사회·임회원 부부동반(간편복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 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인교회)	진동용 목사 (세소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최광덕 목사 (한신대교회)	이창재 목사 (영남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인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성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제일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계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신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천안서목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광교회)	백영자 목사 (동신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제일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권택현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김현옥 목사 (행복한교회)	이희숙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환우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대우교회)	서범석 목사 (가나안성교회)	옥보에 권도사 (소망농교회)	정예스 목사 (예수성교회)	김남수 목사 (범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공영방송 KBS의 동성애 편파 방송이 국민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다

공영방송 KBS는 지난 10월 25일 인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뉴스로 보도한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다시 보도하였다. 이 내용은 고려대 김 모 교수의 조사 결과이며, 동성애퀴어축제측 참가자의 70%가 ‘우울증상’을 보였다고 하고 84%가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66%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예측된다고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또 우리나라가 지난 해 정부가 ‘사회통합실태조사’ 한 것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답하여 사회적 관용도가 낮은 상태라고 보도한다. 그리고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제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한 결과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는 응답자가 77.6%가 되어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 반대 인식이 높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공영방송인 KBS는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어야 하며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그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것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공정하지 못하고, 이처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방송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성애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외설이나 음란 수준으로 벌이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식의 방송은 국민적인 정서와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을 매도하는 태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보도에 대하여 언론 수용자들이 단 댓글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KBS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25일 기사가 올라온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900여개(현재 882개)의 댓글이 올라 왔는데 이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이런 식의 동성애 퀴어축제를 찬성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글은 81개로 9.2%에 불과하였다. 또 운영규정미달이나 작성자 스스로 사죄한 글은 100개로 11.3%에 이른다. 반면에 동성애퀴어축제 및 이런 방송을 한 KBS를 비난하는 글은 707개로 전체의 79.5%를 차지한다.

왜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가? 한 마디로 개인적 성적 취향인 동성애를 길거리로 끌어내어, 타인들에게 시선을 강요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app****라는 네티즌은 개인적 성적 취향을 알리고, 모아서 축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또 22d****는 ‘동성애자로서 사는거 괜찮아. 다만 축제니 뭐니, 여자를 웃 입고 시각적으로 부적절한 쇼품을 팔면서 나대지 말아줘’라고 요청한다.

matu****는 ‘아이들 있는 곳에 음란 공연 반대...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한다. del****는 ‘애들아, 항문xx는 정말 좋은 거란다’라는 피켓을 들고

축제를 벌이는 게 정상인가?’라고 묻는다. ceci****는 ‘퀴어 축제를 안 하면 될 일.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저런 쇼릴(비판) 하던가요???’라고 훈계한다.

방송에 대한 질타도 많다. cas****라는 네티즌을 사용하는 사람은 ‘국민 수신료 받는 공영방송이 늘 이렇게 편파/왜곡/불공정 보도해도 되나요? 요즘 캐본(KBS) 보면 짜증이 난다. 수신료 안 내고 싶다’라고 한다. sumi****도 ‘동성애 옹호 편파 방송 그만둬라’라고 질타한다.

cut****는 ‘언론의 편향적 기사와 성소수자들의 난동과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들로 인해, 격정과 스트레스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어찌할까요?’라며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pky2****는 ‘야 기자야, 왜 성소수자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만 얘기하냐? 나도 성소수자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거든’이라며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KBS는 공영방송이며 국가기간 방송이다. 그만큼 모든 것이 공정하고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보도에 균형을 맞춰야 하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동성애자를 감싸고, 그들 소수의 주장을 알리는데 집중한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정치권과 배후 세력들이 있어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한국교회언론회

인기충, 인천퀴어문화축제 규탄 성명 발표

경찰 편향 법집행, 일부 언론 편향된 보도 지적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이동원 목사, 이하 인기총)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인천동성애음란 집회)에 대한 입장을 공식발표 했다. 불법적으로 개최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찰의 편향된 법 집행과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인기총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했다”며 “정경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의 가정윤리는 세계역사와 한국역사에 가장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가정윤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동성애음란집회)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어 10월 3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규

탄집회라는 명목으로 미니퀴어축제를 진행했다”며 “올해 22만명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퀴어축제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와 퀴어문화축제(동성애음란집회)를 우려하고 있다. 그이유는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남녀 간의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전통적 가치를 소수자의 문화와 인권이란 명분 아래 비사실적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동성간 성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며 비종양속과 윤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에이즈 등 질병의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에이즈 신규환자는 35% 감소했는데 비해 한국은 4.7배로 늘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10%는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

서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고 있어 결국 100%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확진 국내환자가 2016년 11월 기준 12,500명이다. 2016년 한 해 1199명이 신규로 신고했다. 2016년 한 해에만 1000여명이 국민 혈세에서 투입됐다. 현재 남성동성애자들의 동성간 성행위로 에이즈가 확산돼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퀴어축제(동성애음란집회)를 통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동성애를 경험하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또한 동성애 확산은 자녀교육의 황폐화, 군대 내 성분란 등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퀴어(동성애)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선정적인 공연과 변태적인 복장, 음란물 전시는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사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내내으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서울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방문에서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을 펼쳤지만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젠 의장정명과 프랑스와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하고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 제재 완화 시기도 비핵화 이후’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와 한·미 동맹을 해치게 된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군사합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도 지금은 흔들림 없이 제재를 계속할 때임이 거듭 확인됐다.

미국 정부 각료로는 처음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과도 만났던 대표적 외교 원로 매들린 올브라이트(81) 전 국무장관은 “북한이 이성적인 접근법을 추구한다면

회화의 문을 열어야겠지만, 그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도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보면서, 제재와 힘을 바탕으로 끈기있게 협상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미국 측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에도 북한 측과의 경험과 군사적 경제태세 측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뒤 위헌논란이 일자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날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 이어진다.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방력이 약화되거나 군의 사기가 저하되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힘의 논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들추어 회개하기 보다 현재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 명확히 정리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강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하여선정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절대다수 대부분의 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특정 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에 정부에서 병역특례에 대하여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면,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기간은 현역 병에 비하여 2~3배, 그 강도(強度)는 평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맡기를 바란다. 그 정도가 되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는가?

국가가 나서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갚다면,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여도, 후일에는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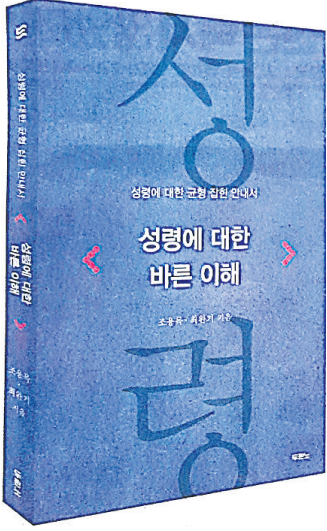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제70회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조용목 목사 “철두철미 성경적인 신앙,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심의 기도” 강조

제70회 구역장 세미나가 10월 22일(월)과 23일(화) 두 차례 성전별로 나누어 안양성전과 전원성전에서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구역장들은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통해 헌신의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 교회와 나라를 위해, 권능 있는 구역장이 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세미나는 다른 성전과 교구의 구역장들을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20년 근속 구역장 표창과 전도

상 시상식,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과 합심기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10월 3:16 말씀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현 시대 상황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며 한국 교회는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틀어 회개하기보다 현재 자신들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의 WCC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세속화를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하여 거룩성을 상

실한 죄를 애용하며 회개해야 하고, 엄중한 남북의 문제와 국가가 잘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와 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존립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및 복음전파를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과 정책 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관이라고 강조하고, 성도는 철두철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써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성경적인 관념과 관점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가를 비교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강에 이어 구역장들은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북한 동포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교회의 받은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성령충만을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조용목 목사는 모든 구역장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구역장의 역할과 사명을 더 훌륭히 수행하도록 축복기도를 해주

었다.

한편 특강에 앞서 열린 구역장 20년 근속상 시상식에서 올해로 20년째 구역장으로 헌신해 온 234명의 구역장이 당회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영예로운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러진 전도상 시상식에서는 안양성전 임동진 남성 구역장과 이산성전 박성미 수석구역장 등 41명의 구역장이 전도대상을, 964명의 구역장이 전도상을 수여 받고 모든 구역장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⑧ 가족관계증명서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 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